



2026 VISION

#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 가정

### 하나님께 여배 드립니다.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 성경이야기

여러분은 친구가 나를 괴롭히거나 속상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떤 친구는 화를 내고, 어떤 친구는 똑같이 갚아 주고 싶어 해요. 사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미워하는 것이 쉬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정말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생겼어요. 사울이 잠든 사이에 다윗은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올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해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멀리 떨어진 산 위에 서서 사울에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창과 물병을 보여 주었어요. 이것은 “저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렸어요. 그리고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용서와 사랑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다윗은 원수를 미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화를 내거나 똑같이 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물론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 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 보아요.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할래요!”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 예배순서

사도신경 ..... 다 같이

찬송 나의 가장 낮은 마음 ..... 다 같이

말씀봉독 사무엘상 26:13~25절 ..... 다 같이

설교 원수를 용서한 다윗 ..... 설교자

말씀나눔 ..... 다 같이

합심기도 ..... 다 같이

축복기도 .....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 다 같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도 화가 날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해 주세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나눔

1. 다윗은 사울을 해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2.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닮아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